

함께 동참

- 가. 귀향한 3세계 산업재해피해자 가족과 자매결연
- 나. 개인을 지정하여 매월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
- 다. 각 국가별 피해자 모임을 지원
- 라. 재활공동체 건설을 위한 필리핀, 중국, 네팔, 방글라데시 현지 활동

< 후원 구좌 안내 >

예금주 : 조 명 숙 국 민 : 759-01-0003-515 조 흥 : 963-04-007950
 농 협 : 100039-52-009856

† 사람소식

지난 7년간 활동을 해오면서 저희들은 조직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그동안 함께 교제를 나눠왔던 분들에 대해 너무나 소홀했음을 반성하며 사람소식란을 만들었습니다. 회지를 받아보시는 여러분의 작은 생활소식들을 전해주시요.

- ♥ 민은기 자매 무주리조트 근무(T.0657.3248356) ♥ 김재숙 자매 남편과 남아공 스텔렌보시 신학교 유학중, 2개월전 둘째득남 ♥ 박승룡 형제 경실련 베트남 개발사업 책임자로 일함, 9월17일 둘째 찬민(아들)이 들 맞음, 하경(큰딸)이 현지적응 위해 기도요함 (T.001.844.8537136) ♥ 박수경 자매 서울예전 사진과 입학
- ♥ 정길면 형제 군제대 후 소식 없어 많은 분들이 간절히 소식기다림, 연락요망 ♥ 원종우 형제 의정부에서 육군현역 근무중 ♥ 이은섭 형제 월간 [복음과 상황] 잡지 근무중 ♥ 김춘실 자매 소식없어 많은 분들이 기다림, 연락요망
- ♥ 김재금 자매 건대전철역 악세사리 노점경영(?) ♥ 정병태씨 전남광주에서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위해 칩거 ♥ 박태서 형제 참살순대 노점경영 근래 성업중

헌금 및 후원

96년 1월 부터 8월 31일 까지 : 합계 8,011,500원

- * 국민1) 총액 4,290,000원 - 한혜중(8회), 한상훈(8회), 김두희(2회), 서울영동교회(8회), 김성현(8회), 김강애(2회), 용은미(6회), 김난주(4회), 이종식(2회), 문성훈(3회), 이해광, 차미란,
- * 국민2) 총액(3월이후부터) 530,000원 - 민은기, 박태룡(2회), 강성택(6회), 박창원(2회)
- * 농 협) 총액 1,100,000원 - 새순교회(8회), 민은기(6회), 김기성, 김민자, 박은희(2회), 박병만, 이종식, 장우진,
- * 조 흥) 총액 2,091,500원 - 정병오(7회), 시민종합법률사무소(8회), 한종욱(2회), 김지연, 무명, 삼산교회, 류승구, 이정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엡2:14)”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소식 제 8 호

편집. 발행인 김 재 오

서울 관악구 신림13동 652-2호 두레학숙 ☎859-0430 96년 9월 20일(통권14호)

이웃이 되어 주세요

저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살고 있는 올해 나이 서른네살된 청년입니다. 90년 7월 15일 한국 미산수산(주)의 원양어선을 타기 전만 해도 저는 아내와 한 아이의 기대와 사랑을 받는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조금 더 잘 살아 보자는 생각으로 빛까지 내어 한국의 원양어선에 취업했던 것이 제 인생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힘든 노동과 매일 가해지는 욕설과 고문, 구타는 배에 오르자마자 제 희망을 빼앗아 갔습니다.

배에 오른지 채 일년이 지나기 전인 91.5.26일 제가 탄 배는 인도네시아 근해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작업도중 결에서 함께 일하던 인도네시아인 선원이 고기잡이 바늘에 걸려 잠시 작업이 중단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선장은 저를 비롯해 함께 있던 다섯명을 선장실이 있는 위쪽 갑판으로 불러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업속도가 늦다며 옆으려 뺨치기를 시킨 다음, 몽둥이로 구타를 하였습니다. 이날 저는 허벅지를 세게 다섯번 맞은 다음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였습니다. 두시간 후에 정신은 깨어났지만 이후 저의 다리는 마비가 되어 허리를 세우고 앉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요청하는 에원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배에 고기가 가득할 때까지 한달이 넘도록 해상작업을 계속하였습니다.

낯설고 머나먼 이국땅, 인도네시아 항구에 배가 닿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들것에 실어 내려놓고선, 그것으로 그만이었습니다. 들것에 실려 제가 고향 연길까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불쌍히 여긴 그곳 사람들의 적선에 의해서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의 다리는 증세가 악화되어 하반신이 모두 마비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쪽다리는 서로 길이가 다르게 짧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의무를 하지 못하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내는 일년전 집을 나갔고, 하나 남은 아들은 외할머니 집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매일 혼자 방안에 누워있는 것이 제 생활의 전부입니다. 제게 남은 일은 남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끼니 때마다 부치는 힘으로 부엌과 방문턱을 넘어다니며 배를 채우는 것 뿐 입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울다 지쳐 잠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행복했던 지난날을 만나고 또 자살을 꿈꿉니다. - 연길에서 박성일 -

<“내가 다시 일어설 수 만 있다면 그 한국인 선장을 어디까지든 쫓아가서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김재오 전도사와 인터뷰에서-고 날마다 생각했다는, 이런 그에게 속죄와 희망이 되어주실 한국인은 누구입니까?. 한국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자기고국으로 추방당해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동서남아인들 수백명의 명단이 저희 피난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있는 사랑을 기다립니다. >

“귀 있는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마13:44)”

피난처 · 귀향모임 소식

① 국외 피해자 모집활동 종결

* 결과 - 피해자 총 670명 모집(스리랑카,네팔,방글라데시,필리핀,중국 등 5개국). 피해유형 산업재해자199명, 사망자27명, 임금체불자167명, 실종자6명, 한국인에 의한 인력송출사기피해자271명.

* 94년 4월 부터 2년동안 4차례 실시된 국외 피해자 모집활동 종결. 현지에서 계속 피해자 접수가 들어오는 실정. 하지만 재정여건상 중단기로 결정. 일단 접수된 피해자들에 대한 생계대책과 보상쟁취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향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예; 각국에 민간상설 신고센터를 현지에서 구성될 피해자 공동체내에 개설하는 등)하기 위해서임.

② 이후 활동 계획

첫째, 각국간의 '피해자 연대모임 결성'과 국제여론 환기를 통해 한국정부에 대한 압력강화 활동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보상요구를 거절. 2년여 동안 인내를 가지고 합법적인 형태의 청원을 했으나 성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음.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형편이 이제 더이상 기존의 운동방법을 고수할 수 없게 만들. 따라서 청원형태의 합법적 운동보다는 국제사회의 여론과 그에 의해서 조성되는 힘에 의해 이 문제를 풀기로 방향 결정.

* 국가별 피해자모임 사무실 개설 및 상근활동가 선발 - 네팔은 96년 1월부터 상근자 2명이 선발되어 활동개시, 중국은 동북3성 중 각성마다 대표자 1인씩 3인이 대표로 선발되어 8월 부터 활동개시, 필리핀은 필리핀내 이민노동자 지원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피해자 자체모임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달중(9월)으로 상근자 선발. 피난처에서 각국 상근자에게 급료 지급할 예정(현재 2명 지급중).

사무실은 각국마다 현지 타민간단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금년말까지 자체 사무실 개설 예정.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피해를 당하고 추방당하는 새로운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모집, 긴급생계구호자금의 전달, 재활공동체 등 장기적 대안활동을 위한 국가별 본부로 사용.

* 피해자 국제연대모임 결성과 국제적 언론플레이 - 각국의 피해자들이 동아시아 한 나라에 모여 포럼(국제회의)을 실시하고, 이때 연대모임 결성할 계획. 아울러 국제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행동을 기획. 각국 피해자가 한 나라에 모이기 위해,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며 행사를 위한 재정보호가 '피해자 국제연대회의'를 성사시키는 주요인이 될 것임. 97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이민노동자의 해'로 시기상 매우 적절하고 유리.

⑧ 연대모임의 유엔 항의행동 및 제소 프로그램' 준비와 진행 - 연대모임에서 한국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한국정부의 반응을 지켜본 후 사망자 가족과 산업재해 장해자들이 직접 유엔에 가서 항의집회와 제소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둘째, 산재피해자 및 가족들의 재활을 위한 국가별 재활공동체 건설

피해자 보상금 찾아주기 운동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확보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자기사회에서 정상인으로 거듭나는 재활운동이 되어야 함. 이는 정부나 단체, 즉 제도의 힘만으로는 해결 불가능. 속죄하는 마음과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진 개인들, 이를 지원하는 단체, 그리고 재정의 힘이 결합되어야 실현가능.

* 당장 긴급치료와 생계구호 요하는 피해자 가족을 선별하여 구제 - 96년 말까지 30가정(중국10,필리핀5,방글라데시5,네팔5) 지원할 계획. 96년 4월부터 중국 4가정 지원시작. 네팔은 사무실 구축완료. 필리핀,방글라데시는 선별작업 진행중. 생계자금은 월 1가족당 4-5만원씩, 긴급치료비는 상황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 국가별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국가별 재활공동체 건설 - 각 국가별 수익사업체 운영, 피해자 자녀 장학금 지원, 직업재활센터 건립, 신탁운동을 통한 자립사업 자금융자, 주거공동체 건설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각 국가별 상근자와 사무소가 초기 출발공간이 될 것임.

⑨ 노동부, 산재보상 신청자 199명중 60명만 보상결정

* 보상결정 인원(총60명) - 필리핀14,네팔14,방글라데시3,중국29명.

* 총 보상금 지급액수 - 약3억원

* 보상탈락(139명) 이유 - 법소멸시효완성 41명, 95년3월1일연수생 14명, 적용제외사업장 16명, 업무의 재해14명, 장해판정 및 사업장소재 불명으로 결정 불가33명, 타부처로 이첩 또는 반려 18명.

* 이번 보상결정의 문제점 - <확실히 산재가 인정되는 자에게도 업무의 재

해로 부지급 판정한 사례, 일방적으로 기업주의 말만 경청하는 입장에서 조사가 이루어짐>, <국내에 있을때 보상을 안해주고 쫓아낸 후, 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어느날 법을 개정하여,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상법 적용한다고 발표하고, 법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탈락시킨 사례가 41명(20%)이나 됨, 또 이 탈락자 중에는 아직까지도 상처 치료가 끝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치료종결일을 기준으로 법소멸시효기간이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은 지금까지도 권리가 살아있는 셈인데 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산업재해임을 인정하고도 혹은 사업주 소재불명 등으로 등급결정을 할 수 없어 판정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들에 대해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음-재입국조치 또는 한국 정부에서 의사를 파견하여 판정하는 등의 기회부여를 하지 않는 것>, <치료조치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상당수인데, 이들중 일부가 보상결정을 받았는데도 치료 요구를 거절하는 것-한국밖에서 치료를 한 것은 인정을 할수 없다고 하여 현지 치료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또한 한국재입국 조치도 해주지 않고 있음>, <추방당하여 본국에서 치료비로 가산을 탕진한 분들이 많은데 한국밖에서 한 치료는 인정할 수 없다고 요양비 지불을 거절하고 있는 점>, <연수생 산재자들 전원에 대해 보상탈락 시킨점, 연수생들의 주장은 자신들은 한국에서 기술은 연수받은 적이 없고 생산라인에서 노동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이 한 일은 짐들어 날리기, 화장실 청소하기 등의 일이었다고 한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사람들에게 화장실 청소하는 법, 짐들어 날리는 법을 연수하는 나라인가”라고 반문하고 있음, 이들이 노동자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도 탈락시킨 점> 등 이외에도 보상결정 이후 개별적인 통지 조차도 외무부 각국주재 한국대사관의 불성실로 인해 잘 되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산재자들의 생활과 권리를 지키는 일은 당연히 ‘정부(노동부)’에게 있다. 국민은 날마다 열심히 일하여 정부에 세금을 낸다. 정부는 국민의 피와 땀의 댓가인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마땅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여 국민들에게 충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정부는 인류의 기본적인 인도주의를 무시함으로써 주인인 국민의 위신을 인류에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한국을 증오하는 사람들이나 만들어내는 정부는 국민의 입술과 막대기에 의해 개혁되어야 한다.

한명의 산재자를 접수하기 위해 우리는 허말라야 산중을 7일간이나 걸어들어간 적도 있다. 만일 정부의 한 공무원이 우리가 이룩해 놓은 정도의 일을 하려고 했다면 얼마의 비용이 들었을까? 우리는 반문해 본다. 아니 그들은 100억원의 돈을 들여도 우리가 이룩한 일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에 대한 애정이나 자발성으로 일하지 않으며 단지 조직안의 한 사람으로 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그동안 우리의 활동을 불온시 하고 감시나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면서도 유엔산하 ILO(국제노동기구)에는 “한국도 외국인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상을 실시한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정부는 아마 이번에도 ILO에 보

고하기 위한 명분을 위해 70%를 탈락시키고 30%만을 선택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탁자에 가만히 앉아서 “한국정부는 심지어 국외로 추방당한 외국인산업재해 노동자들에게도 보상금을 송금했다”는 자랑을 위한 업적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매년 3,000명(91년 부터만 계산해도 1만8천명)이 넘는 3세계노동자들이 한국내에서 산업재해로 불구자가 되거나 죽어갔는데도 지금까지 보상을 받은 사람은 몇명(약5-6백명선)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 몇명의 보상 조차도 민간단체들의 힘겨운(실제로는 너무나 눈물겨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감안한다면 한국정부의 무의지와 인색함은 철저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에 인간의 얼굴이 없고 조직의 얼굴만이 살아 있음으로 인해, 얼마나 정부가 국가의 위신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④ 귀향모임 5차 국외활동(중국,소장 김재오)

7월 29일 출국, 한국정부의 보상결정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있는지와 보상금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주중한국대사관 및 수령자에게), 산재피해자들에게 노동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강연, 이번 한국정부 결정에 대한 개인별 점검과 면접, 심사 청구서 작성,산업재해 피해자 중국모임 결성 등의 일을 하고 8월15일 귀국.

⑤ 귀향모임 6차 국외활동(필리핀, 간사 조명숙)

9월17일 출국, 한국정부 일부 보상결정과 관련한 필리핀 피해자 보상내용 개별점검, 부지급 판정자에 대한 심사청구, 필리핀 산재자 모임 간사선임, 재활공동체를 위한 현지 수익사업 조사 등의 목적, 5일간 활동예정.

⑥ ‘피난처’ 조선족 사기피해자 문제 시민단체협의회에 제안

중국 산업재해 피해자 모집과정에서 다음 문제들이 새롭게 발굴됨. 중국현지에서 한국인들에 의한 한국노무송출을 빙자한 초청사기가 조선족 사회를 해체시키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것,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적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당하는 고문, 폭행,사망,채불임금 등의 문제. 이 문제를 다룰 여력이 없었으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조선족들에 의해 너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고, 이 문제를 방치하면 남북통일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서서 적극 대처에 나섬. 이 문제를 국내의 사회단체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여 해결을 모색키로 함. 제안결과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과 ‘경실련’ 주도하에 시민단체협의회(50개 민간사회단체 연합체)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나

해로 부지급 판정한 사례, 일방적으로 기업주의 말만 경청하는 입장에서 조사가 이루어짐>, <국내에 있을때 보상을 안해주고 쫓아낸 후, 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어느날 법을 개정하여,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상법 적용한다고 발표하고, 법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탈락시킨 사례가 41명(20%)이나 됨, 또 이 탈락자 중에는 아직까지도 상처 치료가 끝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치료종결일을 기준으로 법소멸시효기간이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은 지금까지도 권리가 살아있는 셈인데 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산업재해임을 인정하고도 혹은 사업주 소재불명 등으로 등급결정을 할 수 없어 판정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들에 대해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음-재입국조치 또는 한국 정부에서 의사를 파견하여 판정하는 등의 기회부여를 하지 않는 것>, <치료조치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상당수인데, 이들중 일부가 보상결정을 받았는데도 치료 요구를 거절하는 것-한국밖에서 치료를 한 것은 인정을 할수 없다고 하여 현지 치료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또한 한국재입국 조치도 해주지 않고 있음>, <추방당하여 본국에서 치료비로 가산을 탕진한 분들이 많은데 한국밖에서 한 치료는 인정할 수 없다고 요양비 지불을 거절하고 있는 점>, <연수생 산재자들 전원에 대해 보상탈락 시킨점, 연수생들의 주장은 자신들은 한국에서 기술은 연수받은 적이 없고 생산라인에서 노동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이 한 일은 짐들어 날리기, 화장실 청소하기 등의 일이었다고 한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사람들에게 화장실 청소하는 법, 짐들어 날리는 법을 연수하는 나라인가”라고 반문하고 있음, 이들이 노동자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도 탈락시킨 점> 등 이외에도 보상결정 이후 개별적인 통지 조차도 외무부 각국주재 한국대사관의 불성실로 인해 잘 되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산재자들의 생활과 권리를 지키는 일은 당연히 ‘정부(노동부)’에게 있다. 국민은 날마다 열심히 일하여 정부에 세금을 낸다. 정부는 국민의 피와 땀의 댓가인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마땅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여 국민들에게 충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정부는 인류의 기본적인 인도주의를 무시함으로써 주인인 국민의 위신은 인류에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한국을 증오하는 사람들이나 만들어내는 정부는 국민의 입술과 막대기에 의해 개혁되어야 한다.

한명의 산재자를 접수하기 위해 우리는 허말라야 산중을 7일간이나 걸어들어간 적도 있다. 만일 정부의 한 공무원이 우리가 이룩해 놓은 정도의 일을 하려고 했다면 얼마의 비용이 들었을까? 우리는 반문해 본다. 아니 그들은 100억원의 돈을 들여도 우리가 이룩한 일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에 대한 애정이나 자발성으로 일하지 않으며 단지 조직안의 한 사람으로 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그동안 우리의 활동을 불온시 하고 감시나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면서도 유엔산하 ILO(국제노동기구)에는 “한국도 외국인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상을 실시한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정부는 아마 이번에도 ILO에 보

고하기 위한 명분을 위해 70%를 탈락시키고 30%만을 선택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탁자에 가만히 앉아서 “한국정부는 심지어 국외로 추방당한 외국인산업재해 노동자들에게도 보상금을 송금했다”는 자랑을 위한 업적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매년 3,000명(91년 부터만 계산해도 1만8천명)이 넘는 3세계노동자들이 한국내에서 산업재해로 불구자가 되거나 죽어갔는데도 지금까지 보상을 받은 사람은 몇명(약5-6백명선)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 몇명의 보상 조차도 민간단체들의 힘겨운(실제로는 너무나 눈물겨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감안한다면 한국정부의 무의지와 인색함은 철저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에 인간의 얼굴이 없고 조직의 얼굴만이 살아 있음으로 인해, 얼마나 정부가 국가의 위신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④ 귀향모임 5차 국외활동(중국,소장 김재오)

7월 29일 출국, 한국정부의 보상결정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있는지와 보상금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주중한국대사관 및 수령자에게), 산재피해자들에게 노동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강연, 이번 한국정부 결정에 대한 개인별 점검과 면접, 심사 청구서 작성,산업재해 피해자 중국모임 결성 등의 일을 하고 8월15일 귀국.

⑤ 귀향모임 6차 국외활동(필리핀, 간사 조명숙)

9월17일 출국, 한국정부 일부 보상결정과 관련한 필리핀 피해자 보상내용 개별점검, 부지급 판정자에 대한 심사청구, 필리핀 산재자 모임 간사선임, 재활공동체를 위한 현지 수익사업 조사 등의 목적, 5일간 활동예정.

⑥ ‘피난처’ 조선족 사기피해자 문제 시민단체협의회에 제안

중국 산업재해 피해자 모집과정에서 다음 문제들이 새롭게 발굴됨. 중국현지에서 한국인들에 의한 한국노동수출을 빙자한 초청사기가 조선족 사회를 해체시키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것,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적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당하는 고문, 폭행,사망,체불임금 등의 문제. 이 문제를 다룰 여력이 없었으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조선족들에 의해 너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고, 이 문제를 방치하면 남북통일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서서 적극 대처에 나섬. 이 문제를 국내의 사회단체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여 해결을 모색기로 함. 제안결과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과 ‘경실련’ 주도하에 시민단체협의회(50개 민간사회단체 연합체)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나

서기로 함. 오는 10월 5일 천도교수운회관에서 '중국동포의 밤' 행사를 갖고 '페스카마호'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기 까지 한국인이 중국현지, 국내, 원양선에서 행하는 비행에 관한 진상을 발표하고 회개운동을 시작하기로 함. 이날 대책위를 정식으로 꾸리고 향후 중국현지에서 갖춰진 피난처(귀향모임) 활동조직을 이용하여 현지에서 피해자 신고 접수를 1만명 단위까지 받기로 함. 언론취재는 1차로 '주간 한겨레21'이 20페이지 분량 커버스토리로 다루기로 사전협의 마침.

⑦ '피난처', 피해자를 구심점으로 두레마을과 함께 중국에 공동체 설립기로 함

조선족 산업재해자들 및 그동안 피난처가 맺은 사기피해자들을 근간으로 하여 재할, 남북통일을 위한 미래 민족공동체, 새로운 중국 사회를 위한 모델공동체 실험하기 위해 농장을 설립기로 함. 50만평 규모이고 10만평으로 시작기로 함. ⑥, ⑦번 관련 활동을 위해 이호택 간사와 김재오 소장이 9월 23일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 팀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예정. 체류기간 약 20일.

피난처는 이런 형태로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및 기타국에 한국관련 피해자들을 근간으로 한 재할공동체 설립을 희망하고 있음. 각 국가마다 현지인들과 충분한 유대와 인적자원이 발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신된 사람과 자원만 결합되면 당장에 시작이 가능함. 여러 개인과 단체의 제안을 기다림. 장기적으로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난처는 '국경없는 사람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국제적인 NGO(비정부조직)로 변신할 계획을 추진중임.

⑧ 재정사업(의류판매업)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난 3월 부터 노점에서 옷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번씩 밤을 세우며 동대문시장에서 옷을 구입하고, 낮에 판매하는 일, 노점단속에 신경써야 하고, 국외 피해자 자료정리와 정부에 보상신청 하는 일 등으로 저희들은 무척 많이 지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조명숙 간사는 간염이 심해 몸을 주체하지 못하면서도 장사를 해야하고, 저도 역시 몸 오른쪽 전체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재정을 채워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치료조차도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추방당한 채 절망적인 가난속에서 저희만을 바라보고 있는 산재자들과 그 가족들, 사망자 자녀들과 부인들의 애타는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정의의 요구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국민이 버린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 T셔츠 등 단체복을 저희에게 주문해 주십시오. * 재고로 남은 새옷 등을 기증해 주실 분,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 값싸게 옷을 처분하실 분. * 수익 좋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중 개인적인 문제로 처분할 계획이 있으

면 저렴한 가격으로 물려 주십시오. * 기타 사업거리를 제공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⑨ 피난처와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은 !

재정사업과 분주한 업무로 사무실 근무 불가하니 다음으로 연락요. 전화 0345-408-4025, 주소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718-10 201호. 또는 삐삐 015-970-9052(간사 조명숙).

□ 쉽 터 □

땀과 노역속에 그분 곁에 서십시오

이 찬송과 노래와 기도 따윈 그만두시지요!

문들은 모두 닫힌 이 사원의 쓸쓸하고도 어두운 구석에서 당신은 누구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눈을 뜨고 보십시오.

신은 당신 앞에 없다는 것을!

그분은 농부가 팍팍한 땅을 갈고 있는 곳과 길 닦는 이가 돌을 깨고 있는 곳에 계십니다.

별이 들거나 소나기가 퍼붓거나 그분은 그들과 더불어 계십니다.

그분의 옷은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당신의 신성한 땅토를 벗고 그분처럼 당신도 먼지투성이의 저 흙 위로 내려가십시오.

해탈이라고요? 해탈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주는 창조의 속박을 스스로 기꺼이 떠맡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들 전체와 맺어져 있습니다.

명상에서 빠져나와 꽃도 향도 내버려 두시지요!

당신의 옷이 더럽혀지고 갈갈이 찢긴들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이마의 땀과 노역속에 그분을 만나서 그분 곁에 서십시오.

- 타고르의 '기탄칼리'에서 -